

여성창업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 숙 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최 자 경*(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되면서 창업이나 기업 경영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을 이루려는 여성기업가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미약하며 사회적 제약이나 편견 등이 뒤따라 성공하는 확률이 남성기업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기업의 육성이 정책적 차원에서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여성기업지원제도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지원과 교육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개인적인 특성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창업정책과 예비여성 창업가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하여 첫째, 여성 창업기업의 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여성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은 어떠한지, 그것이 기업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셋째, 여성창업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지원이 여성 창업가의 기업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문지를 이용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조사의 연구대상은 창업한지 6개월 이상 지난 여성기업가 1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00명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으며, 10명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는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χ^2 검정, T-test,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분석한 결과, 여성창업의 동기는 경제적인 이유가 26%였으며, 기업운영시 애로사항으로는 가사노동과 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이 19.6%로 가장 높았고, 자금 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는 43%가 창업준비기간에 가장 어려웠다. 또한 초기투자자금의 출처는 저축 등의 개인자본이 39.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높을 경우, 교육적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간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성 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전에 목표한 연간순이익이 높을수록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더 큰 연간순이익을 내어 기업성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여성창업자들의 경우, 초기투자자금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교육적 지원을 받은 여성창업자들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업의 성과는 여성창업가의 기업가적 성향, 학력, 연령, 목

표 등의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창업 및 기업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여성기업가들의 기업가적 성향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조사에서 여성기업가들이 성장과정과 가정의 역할이 기업을 경영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정부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여 성공가능성이 큰 여성기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여성창업가들을 위한 규제완화, 세금우대정책,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의 보편화, 온·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킹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심점으로 여성기업들이 한데 뭉쳐 성공가능성 있는 여성기업에 투자하고 이로써 얻은 이윤을 재투자해 여성기업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